안태석, 장선숙 선교사 1월 기도제목

12월 26일, 성도 "니차'가 교회 계좌번호를 묻습니다. 니차가 왜 묻지? 하고 아무 생각없이 보내주었습니다. 5만바트(약2백만원)을 헌금했습니다. 딱 교회 한달 헌금이 만 바트가 되지 않으니 정말 큰 금액을 헌금한 것입니다. 니차는 작년 1월에 골수암 4기 판정을 받고 9월경엔 머리로도 전이가 되었습니다. 하나뿐인 대학생 딸이 태어나자마자 남편과 이혼하고 혼자 미용실을 하며 살아갑니다. 딸은 멀리서 공부하고 있고 니차를 돌보아 줄 친척이 가까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돌보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암으로 인해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시골 땅을 팔아야 한다고 몇 달 전부터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땅 문서도 없는 시골 땅이라 팔려고 하니 등록이 되어있지 않아 쉽게 팔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주 다른 지역의 사람에게 좋은 가격으로 팔았다고 합니다. 이분은 하나님은 진짜 살아 계셔서 응답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헌금하며 고백합니다. 그 날은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날이었습니다. 이분에게 행하신 기적에 놀라고 또 헌금을 할 수 없는 자신의 상황에도 기쁘게 헌금을 드리고자 하는 마음을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놀랐습니다. 알고 보면 지난 한 해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또 깜짝 잊고 하나님께서 안 계신 것처럼, 무능한 것처럼 소망없이 지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을 다시 기억하며 주님이 계속해서 행하실 기적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크리스마스 행사를 마치고>

<감사>

지난 일년 딱 교회에서 성도들과 같이 함께 울고 웃으며 사역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 교회 사역을 통해 태국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씩 더 알게 하시니 감사, 성탄절 축하 예배를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심, 매일 아침 기도회 시간을 통해 성도들이 교회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하심, 7명이 처음 "새신자 성경공부과정"을 마치게 함에 감사, 동민이가 군생활 잘 마치고 1월에 제대하게 하심에 감사, 이레의 취업과 사회생활을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 한 달 동안 건강하게 또 넘치도록 풍성히 공급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기도제목>

1. 은혜: 저희들의 영육의 건강과 시간관리를 잘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특히 저희들이 외국인 선교사 이 면서 기존의 오래된 교회에서 목회자역활을 감당 해야 하기에 여러가지 한계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끊임없는 위로와 상황에 맞는 지혜를 주시길 기도해 주십시오. 특히 장선교사 햇볕 알러지에서 지켜 주시길 기도해 주십시오.

2. 딱교회: 1. 성도들이 주일 성수, 제시간에 예배와 모임에 오는 습관이 되도록 2. 기존 주일 오후 성경공부팀과 새로운 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40대의 젊은 분들이 같이 공부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시길. 3. 딱 교회를 사랑하고 물질로 시간으로 헌신하고자 하는 2가정을 보내주시길 4. 말씀으로 훈련되어 리더로 세워질 5명을 주시길 5. 태국 목회자를 보내주시길

3. 예비 사역자: '나'가 시작한 반찬 장사가 잘 안되었습니다. 자립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시길 기도해 주십시오. '깐'은 내년에 6개월 실습을 가는데 주일 성수가 될 수 있는 곳으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조이와 독마이부부 그리고 플로이를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4. 코로나: 12월부터 방콕남부로부터 코로나가 조금씩 전국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곳 딱도 미얀마와 국경 접경지역이라 마음을 놓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늘 평안한 마음을 주시길 기도해 주십시오.

전 화 : 070 8251 0151 ++66 845 307 544(현지)

이 멜 : taeseok77@hanmail.net/ ~@gmail.com / 카 톡 ID : Simplelifepeter

빌 4:19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